전남도립대학교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사업 추가 심의에서 탈락한 데 이어 고등교육 기관거점지구 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셨다.

지역인구 감소와 재학생 중도이탈, 저조한 취업률, 학내 구성원 갈등 등 악재에 재정 건전 성을 담보할 수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연이어 쓴잔을 마시면서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워 지고 있다.

5일 전남도립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립대는 최근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거점지 구(HiVE) 공모사업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다. 고등교육기관거점지구 사업은 교육부의 공 모사업으로지역소멸과학령인구감소등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.

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전 문대학이 지역상생 주체로서 위치를 정립하고 생애 전주기 고등직업교육 거점화 지원을 하는

도립대는 인근 화순군, 담양군과 협약을 맺 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. 당시 협약한 내용 다.

# 교육부 지원사업 공모 잇단 고배 전남도립대, 존립기반 '위태위태'

경쟁력 약화 속 재정손실 눈덩이 학생 이탈·취업률 저조 '빨간불'

은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참여를 비롯해 지 역특화분야 선정, 교육과정 연계·개편을 통한 인재양성, 지역사회 현안해결 및 지역사회 공 헌, 산업계 연계 취업지원, 지역정착 지원 등이

이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45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도립대는 이번 공모에서 부족했던 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.

도립대 관계자는 "내년에 고등교육기관거점 지구 사업 대학이 30개에서 60개로 늘어난다" 며 "이번에는 탈락 했지만 내년에는 잘 준비해 서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"고 말했다.

이어 "이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협업하는 것 으로 정주형 일자리 창출 부분이 배점이 가장

높았다"며 "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일 자리 창출 부분 등을 잘 파악해 올해 가을부터 관련 내용을 준비하려고 한다"고 덧붙였다.

도립대는 앞서 지난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 원대학에서 탈락했다. 이는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한 탈락이다.

지난해 전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, 전남도립대는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.

이후 교육부의 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을 위 해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최종 탈락했 다.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하면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이 3년간 제한된다. 교육부는 일 반재정지원 사업에 추가 선정된 대학에 올해 20억원, 내년과 내후년 각각 40억원 등 총 100 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.

한편, 전남도립대는 1998년 담양, 이듬해 장 흥에 2개 캠퍼스로 개교했다가 2004년 담양으 로 통합됐다.

지난 2013년부터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시행 하고 기숙사 제공과 통학버스 운영 등으로 학 생들을 지원해 왔지만 높은 중도탈락률과 저조 한 취업률 등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. 최근에는 특정업체 지원수업을 이유로 학생들 의 수업거부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학내 내홍 도 심각한 상황이다. 전남도는 1998년부터 지 난해까지 학교시설비와 인력운영비 등으로 모 두 2,10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.

/정근산 기자



2022 전남 수산관측 전망대회가 지난 4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,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 장,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, 어촌지도자 등 참석자들이 수산물 생산 4조원 달성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. /전남도 제공

## 전남도, 수산물 생산 '4조 달성' 도전

#### 수산관측 전망대회 개최

전남도가 지난해 3조 1,000억원을 생 산한 수산물 생산 규모를 올해는 4조원 으로 크게 늘려 잡고 목표 달성에 도전

전남도는 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(KMI)과 공동으로 도청 김대중강당에 서 전남 수산인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2022 전남 수산관측 전망대 회'를 개최했다.

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준석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, 김종덕한국 해양수산개발원장, 이광일·박원종 도 의원, 지구별 수협장, 수산 관련 단체와 수산 현장에서 어촌을 이끌어가는 전남

지역 어촌지도자 등이 참석했다.

전남 수산관측 전망대회는 2019년 처 음 개최된 후 코로나19로 순연됐다가 올해 2회째를 맞았다.

전국단위의 '해양수산 전망대회'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.

이날 행사에서 전남도는 '해양수산 주요업무'와 수산물 생산 4조원 달성을 위한 '전남 10대 핵심 품종 산업화'를 발표했다.

또 전남수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. 전남지역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, 유통부분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관측・분석 하고 공개했다.

분석결과 2021년 생산량은 1,988톤

으로 2020년(1877톤) 대비 111톤 (5.9%) 증가했으며 전국 생산량의 59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생산액은 3조1,002억원으로 2020년 (8,898억원) 대비 2,104억원 (7.3%) 늘어난 가운데 전국 생산액의 39%를 점유했다. 지난해 가장 많이 생 산한 수산물은 미역류로 55만6,012톤 을 출하했다.

생산액은 전복류가 6,913억원으로

김영록 지사는 "수산업의 현재를 명 쾌하게 진단하고, 좋은 미래 정책대안 을 제시해 어업인과 함께 수산물 생산 4 조원 달성을 이룩하겠다"고 말했다.

/오선우 기자

## '당대표 출마'김민석, 광주 방문…"소탐대실 편의주의 혁파"

한 김민석 의원은 5일 첫 공식일정으로 다"며 "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, 대선을 광주를 찾아 "당내 만연된 소탐대실의 편의주의를 혁파하겠다"고 지지를 호

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에서 기자들과 만나 "호남은 민주당 정 신의 중심축, 미래 판을 바꾸는 중심축 이자 대안부재론과 같은 관성적 편의주 의를 극복해낸 곳"이라며 이같이 밝혔

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 민주당은 절박하게 대안을 찾는 중이 이길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"고 주장했다.

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"계파어 서 자유롭고 민주당이 큰 선거에서 이 겼을 때 그 중심에 있었다. 비교적 균형 감이 있고 통합력이 있다"며 "가장 시 급한 민생을 지키고 총선 승리 통해 정 권교체를 준비하려면 통합력을 가지고 당을 혁신하면서 갈 수 있는 경험 있는 그는 "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, 지금 전략을 가진 대표가 필요하다"고 강조



서울대 총학 생회장과 전학 련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기수 격인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 령에게 발탁돼

정계에 입문해 31세에 처음으로 국회의 원에 당선됐다.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 등포을에서 당선돼 18년 만에 3선 고지 에 올랐다. /길용현 기자

## 강진군의회 의장・부의장 모두 여성

#### 김보미·유경숙 의원 당선

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 거에서 의장에 재선의 김보미 의원(사 진), 부의장으로 초선의 유경숙 의원이 선출됐다.

역대 강진군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을 모두 여성 의원이 차지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.

의회운영위원장에는 노두섭 의원, 행 정복지위원장 정중섭 의원, 농업경제위 원장에는 윤영남 의원이 각각 뽑혔다.

김보미 의장은 5일 개원사에서 "품위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"면서 "군민이 위 임해준 권한을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 을 위해 아낌없이 행사해 의정사에 길



이 남을 선진 의 회상을 실현하 겠다"고 밝혔 다.

강진군의회는 6일 8명의 의원 모두가 다산회 당에서 다산정

신을 기리고 의원 임기 4년간의 의정활 동 포부를 밝히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 /강진=한태선 기자



### 김회재, 민주 '정치보복수사대책위' 간사 임명

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(여수 을) 장을 맡고,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부 위원장으로 합류했다. 이 윤석열 정권의 '정치보복 수사'대

민주당 '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'

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위원

응 선봉장으로 나선다. 대책위 위원으로는 김영배, 김의겸 김 의원은 5일 "당내 '정치보복수사 의원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대책위원회'위원으로 임명됐고, 간사 김회재, 임호선, 최기상 의원이 포함 역할을 겸임하게 됐다"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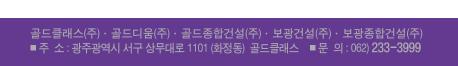
>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의 첫 공개 회의 모두 발언



에 "윤석열 정 권의 '정치검 찰', '검찰공화 국'은 반드시 실패할것"이라 며 "윤석열 정 권의 '검찰공화 국', '정치검

찰', '정치보복수사'를 국민들과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"고 말했다.

/서울=강병운 기자



단,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

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, 골드클래스

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

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

골드클래스